

# 쿠데타 2년...출구 안보이는 미얀마

군부 폭력에 2900명 이상 숨져  
1만7500명 체포 1만3500명 구금  
경제 곤두박질 서민들 삶 피폐  
새 선거법...군부 장기집권 노골화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 지 다음달 1일이면 2년이 된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필두로 한 군부는 아웅산 수처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고, 반대 세력을 유혈 탄압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무기력한 제재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사이 미얀마인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고, 군정은 장기집권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29일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정치범으로 약 1만7500명이 체포돼 여전히 1만3500명 넘게 구금 중이다. 군부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2900명에 달한다. 쿠데타 직후 반군부 거리 시위와 시민불복종운동(CDM)이 일어나자 군부는 무자비한 폭력을 앞세워 진압에 나섰다. 반군부 세력은 무장 투쟁으로 맞섰다.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가 조직한 시민방위군(PDF)과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끈질

기게 저항하고 있고, 군부가 무차별 공습을 가하면서 민간인 다수도 목숨을 잃었다.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희생자는 계속 늘고 있다. 군부는 공포 정치로 국민들을 짓누르고 있다. 쿠데타 이후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 지난해 7월에는 NLD 소속 표 제야 또 전 의원 등 반군부 세력 인사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수처 고문은 선거 조작 및 부패 등 19개 혐의로 기소됐고, 18개월간의 재판 끝에 총 33년형이 선고됐다. 그는 현재 수도 네피도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미얀마 경제 사정은 더 악화하고 있다. 서방국들의 제재가 가해지고 외국 기업들이 줄줄이 미얀마 시장에서 철수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속에 군정의 경제 정책 실패까지 더해져 미얀마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는 급등했다.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 미얀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로 곤두박질쳤다. 전기 부족으로 정전 사태도 겹쳐 미얀마 서민들의 삶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40%인 2200만 명까지 늘었다고 분석했다. 군정의 폭정과 생활고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NUG는 지난해 1년 동안 미얀마군이 가옥을 4만1000채 이상 불태우거나 파괴했다고 밝혔다.

민간 전략정책연구소인 ISP미얀마는 지난달 기준 실항민이 200만 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미얀마 인구의 약 3%가 난민이 된 셈이다. 국제사회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가 군정을 상대로 일부 제재를 가하며 폭력 중단과 민주주의 복구를 종용했지만 군정은 꺾이지 않았다. 중국, 러시아 등 일부 친군부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마이 웨이'를 고수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해결책 모색에 나섰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 아시안은 2021년 4월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5개 합의를 도출했으나 군정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 사태는 올해 중대한 기로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부가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체제가 종료되고 민간 정부로 권력을 이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8월개 총선 개최를 추진 중인 군정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새 선거법을 제정하는 등 장기집권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사실상 민주진영의 선거 참여와 승리 가능성을 차단했다. 군정이 짜놓은 각본대로 총선에서 승리하면 미얀마 사태는 더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내부분쟁 사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버스 추락·배 전복 최소 51명 사망 29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의 한 병원 앞에서 같은날 일어난 버스 추락사고와 사망자의 유족들이 슬퍼하고 있다. 이날 파키스탄에선 두 건의 수송 관련 사고가 발생해 최소 51명이 숨졌다. 남서부 발루치스탄 라스벨라에선 48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해 최소 41명이 숨지고, 북동부 카이베르파크트크와주 탄다 호수에선 25~30명의 학생과 교사가 탄 배가 뒤집혀 최소한 10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 젤렌스키 “러시아 파리올림픽 참가 금지 해야”

마크롱 대통령에 서한 보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들의 참가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영상 연설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 선수들이 다시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테러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전 세계에 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젤렌스키는 전정 중엔 민간인과 비군사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러시아의 무차별 미사일 공습을 테러로 규정해 비판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올림픽이나 다

른 어떠한 스포츠 행사도 침략이나 맹목적 애국주의를 옹호하는 선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는 지난 25일 “어떤 선수도 그들의 여권(국적) 때문에 출전이 금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IOC는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파리 올림픽에 자국을 대표하지 않는 ‘중립 운동 선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세기 전반부에 유럽에서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진 실수들이 너무나 많이 저질러졌다. 올림픽에서도 큰 실수가 있었다. 올림픽 운동은 테러 국가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프랑스 정부-노동계 연금개혁 팽팽한 대치

오늘부터 2차 총파업 돌입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계와 정부의 대결이 팽팽히 이어지고 있다. 연합전선을 구축한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31일 재차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12년 만에 연합전선을 구축한 프랑스 8대 노동조합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과 연금개혁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의 수가 수백만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일 1차 총파업 당시에는 프랑스 전국

200여곳에서 열린 집회에 정부 추산 110만명, 노동계 추산 200만명의 인파가 몰렸는데, 2차 총파업에서는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프랑스 노동조합들은 지난 19일과 마찬가지로 31일에도 전국 200여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수도 파리에서는 연금개혁 법안을 심사할 프랑스 하원으로 향하는 대규모 거리행진도 기획됐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당국장은 현지 방송에 출연해 “대중교통에 힘든, 매우 힘든 날이 될 것이다. 큰 차질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철도공사(SNCF)는 성명을 내고 31일 파업의 영향으로 철도망 전체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철도 이용계획을 연기·취소하거나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했다. /연합뉴스

## “경찰관들이 또”...20대 흑인사망 규탄시위 美전역 확산

뉴욕·LA 등 동시다발 거리행진  
폭력 영상 공개 폭풍 전야 긴장

미국 테네시주(州) 멤피스에서 경찰이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한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29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전날 뉴욕, 애틀랜타, 보스턴, 볼티모어,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등 미국 주요 도시 상당수에서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거리행진이 벌어졌다. 이날 7일 쯤가 중이던 흑인 남성 타이어 니컬스(29)를 난폭운전 혐의로 불러세운 경찰관들이 그에게 물매를 놓는 ‘보디캠’ 영상이 공개된 데 따른 결과다. 폭행 현장에 세워진 임시 추모소를 찾은 주민 키아라 힐은 “경찰관을 비롯, 그곳에 있던 사람 중 가장 침착했던 건 니컬스였다”고 꼬집으면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보면 가슴이 미어질 듯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처럼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CNN은 28일에 이어 29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규



2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시민들이 경찰의 집단폭행으로 숨진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29)의 죽음과 관련해 한 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탄 집회와 추모 기도 등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28일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관련 시위를 벌이던 일부 시민이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경찰차 유리를 깨뜨려 체포되고, LA에선 시위대가 경찰차를 흔드는 등 위협적 행동을 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다만,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

잉 진압으로 사망했을 때처럼 전국적인 항의 시위와 함께 폭동 등 폭력사태가 동반될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 백인 경찰관이 흑인 남성을 과잉진압해 숨지게 한 플로이드 사건과 달리 니컬스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 5명은 전원 같은 흑인이어서 인종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지 않아서다. /연합뉴스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영광군 공고 제2023-90호

### “대마산단 ~ 국도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대마산단~국도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31.  
영 광 군 수

-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대마산단~국도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사업
  - 사업종류 : 도로사업
  - 위치 :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 삼효리 일원
  - 사업내용 : 도로 신설 및 선형개량 L=6.12km, B=11.5m
  - 면적 : 161,716.2㎡
  - 사업기간(예정) : 2023. 6. ~ 2027. 12.
  - 사업시행자(주) : 영광군수(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
  - 공람기간 : 2023. 1. 31. ~ 2. 15.(15일간)
  - 공람장소 : 영광군청 건설과, 묘량면사무소, 대마면사무소
  - 공람도서 : 주민 등의 의견청취서류
  - 관련도서 및 도면 : 계재생략(공람장소 비치)
-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3. 1. 31. ~ 2. 15.
  - 제출방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대신하며,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건설과(☎061-350-54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최희(2111-XXXXXXX)  
· 최후주조 : 광주 남구 용동371번길 7-69 503호(영광읍 삼일아파트)  
· 피상속인 망 최희의 상속인인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청구가정법원 2022-년1389호로 신청하여 2023년 1월 20일 심판 인용되었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승계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위하여 위 기간이 지난날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월 31일

- 상속인 1. 김갑용(400828-XXXXXXX) 광주 동구 동계로 89동(영광읍) 광주 남구 영광로 31. 1109 1705호(영광읍, 방방류현사아)
- 김갑수(580901-XXXXXXX) 광주 남구 영광로 31. 1109 1705호(영광읍, 방방류현사아) (영광동, 진흥리(파트))
- 김남희(600101-XXXXXXX) 광주 남구 영광로 31. 1109 1705호(영광읍, 방방류현사아)
- 김현희(710920-XXXXXXX) 광주 남구 효유로 332-11. 109동 203호 (영광동, 중흥리(파트))
- 김현수(90114-XXXXXXX) 광주 남구 영광로 31. 1109 1705호(영광읍, 방방류현사아)
- 김현영(760320-XXXXXXX) 서울 마포구 서강로 33 104동 803호 (상암동, 마포로(노래마당(영광읍))

· 신고기간 : 2023. 1. 31. ~ 2023. 4. 12.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2. 김병희의 주소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고종원(580327-XXXXXXX)  
· 최후주조 :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66-3  
· 피상속인 망 고종원의 상속인인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청구가정법원 2023-년40호로 신청하여 2023년 1월 20일 심판 인용되었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승계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위하여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월 31일

· 상속인 : 고아라(840914-XXXXXXX) 제주시 사라봉1길 50, 자동 116호 (진림동, 광덕아파트)

· 신고기간 : 2023. 1. 31. ~ 2023. 4. 12.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고아라의 주소

### 자본감소로 인한 채권자 이익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3년 01월 27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310,000,000원을 금 150,000,000원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는 발행주식총수 31,000주 중 16,000주를 1주당 금 10,000원에 매입하여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31,000주를 1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구주권을 가지는 주주는 구주권을 본 회사에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31일

주식회사 남우조경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해강로 1426-1 대표이사 변미선

### 분실공고

· 권리의무 승계 내역서 :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155, 109동 1602호(우산동, 무등산자연어울림아파트1단지)  
· 계약자 : 엄희원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3년 1월 31일

### 산행안내

2월4일(토)

▲광주호산회 2월4일(토) (제644차 정기산행) 고령 연흥도 지붕없는미술관 아름다운섬 트레킹후 생태숲 트레킹) 오전 06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7시 롯데화점 07시15분 예술회관후문 ☎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2월5일(일)

▲광주한길산악회 2월5일(일) (지리산 천왕봉 눈꽃산행(중산리~천왕봉~백무동)) 오전 06시 50분 비엔날레주차장전면출발 ☎ 010-3635-1707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노**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